



설문대어린이도서관

#제주도 제주시 #자산취득비 지원

제주도의 설문대어린이도서관,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의 제주도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은 1998년 개관된 제주도 최초의 민간 어린이도서관입니다. 이후 제주도에서 어린이문화를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찾아가는 도서관으로 책문화가 형성되지 않는 도서지역을 찾아가 책 문화를 만들고 마을축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그림책을 활용한 문화 찾기 등 다양한 책과 관련된 문화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어른들, 우리들이 꿈꾸는 행복한 공간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들이 좋은 어린이 책과 문화 활동을 통하여 무엇이든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올바른 가치관과 인격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주는 공간입니다. 더불어 생각이 자유로운 아이들과 어른들이 잠재된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사회 교육의 장을 지향합니다. 설문대에서 우리들은 세상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느끼며, 책과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동시에 문학과 소통하는 장을 만드는 기회를 갖습니다.

긴급지원119와 함께한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의 2017년은 어떠했나요?



긴급지원119가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의 목마름에 한 줄기 시원한 물줄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용자가 도서관에 기증했던 오래된 모델의 컴퓨터에 도서관리 시스템조차 오래된 것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컴퓨터를 켜는 순간 도서관에서는 요란한 소리가 들렸고 도서자료가 사라질까봐 노심초사 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문의 했더니, 오래된 것이라 경비가 많이 들어야 해서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긴급지원 119를 통해 새 컴퓨터가 생겼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으로 도서관리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또한 자료검색과 정리가 쉽게 되어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결 가벼워진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더 이상 노후화된 컴퓨터의 시끄러운 기계음으로 도서관의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들어야 했던 시끄러운 기계음도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좋은 음악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지요. 좋은 음악소리가 흘러나와 마음까지 행복해진 공간에 모두들 만족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 분위기 또한 훨씬 좋아졌지요. 도서관 분위기가 한층 밝아지고 행복해졌습니다.

한층 밝아진 2017년의 설문대에서 함께 역사를 공부했던 친구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은 다른 도서관하고 다르게 편해요.” 라고 말하더군요. 도서관은 늘 조용하고 책만 봐야 하는 곳이라 생각하는 이 친구에게 함께 어울려 이야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책도 보며 편한 곳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 주어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탐험 프로그램을 다 마치고, 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고 아이들의 공연을





함께 감상했습니다. 감상하는 부모님들의 흐뭇한 표정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가시면서 두 손 잡고, “너무 감사하다. 아이들이 이렇게 신나하는지 몰랐다.”, “아이들 영상을 받아서 간직하고 싶다.” 라고 하셨던 부모님들의 이야기에 눈물이 날 뻔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설문대 활동가들도 활기 넘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이 꾸준히 사람을 만나고 책을 만나고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공간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의 2018년은 어떠한가요?

작년에 이어 ‘세상에서 가장 작은도서관 만들기 시즌2’를 하려고 합니다. 꾸준히 사람과 사람, 사람과 책, 사람과 문화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도서관이 북 큐레이터가 되어 다양한 ‘책 이야기’를 준비하여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에게 책과 함께 하는 문화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아빠들의 모임도 시작해볼까 합니다. 아빠들의 모임도 중요하지만 선뜻 시작을 못 했는데 이번 ‘세상에서 가장 작은도서관 만들기 시즌1’을 했던 엄마들의 요구로 아빠들의 모임을 만들 용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온 가족이 책과 함께 하는 인문학이 시작될 수 있도록 논의 하는 중입니다.

작은도서관 활동가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다른 말 필요 없이,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